

광주은행 전국을 가다 “고향사랑기부 동참해주세요”

길거리 캠페인·외벽광고 등 다양한 매체 이용 홍보 활동 광주·전남·서울 등서 고병일 은행장 등 임직원 대거 참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이 2024년에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지역 유일의 향토은행인 광주은행은 길거리 홍보와 외벽광고는 물론, ATM과 현금 봉투 등 홍보가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 임직원이 함께 나서는 홍보 캠페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를 확대,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겠다는 복안이다.

20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개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 기부금을 통해 고향사랑을 실천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는 기부금 10만원 이하의 기부금 전액,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 제공 및 기부금의 30% 이내로 기부 지역의 특산품 등 답례품이 제공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의 복지, 문화, 예술 등 사업에 사용돼, 재정이 열악한 전남지역 일선 사·군에 큰 보탬이 되는 데다 기부자가 늘어나면 지역 활

화로 이어질 수 있다. 광주은행이 최근 실시한 가두캠페인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출향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과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비롯해 각 광주은행 영업본부 임직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최근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박만 노동조합위원장 등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광주송정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배포와 함께 기념품을 전달하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 각 지역 본부 부서장과 광주·전남·수도권 영업점장 등 총 180여명이 고향사랑기부제 가두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가까운 광주송정역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전남 목포역, 순천역, 서울 용산역 등 영업본부별로 팀을 이뤄 홍보활동의 열기를 더하고 있다.

특히 홍보에 나선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함으로써 단순한 기부활동이 아님을 안내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답례품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박만 노동조합위원장 등 광주은행 임직원들이 지난 7일 광주송정역 앞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펼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혜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광주은행은 또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본점과 영업점 외벽에 홍보 광고를 게재하고, 자동화기기(ATM)와 현금 봉투, 입출금 통장 등 광주은행이 생산, 관리하는 물품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할 계획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를 더 많은 고객 및 지역민과 나누기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기부 참여 문화의 확산 등 지역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광주송정역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전남 목포역과 순천역, 서울 여의도 지하철역에서 영업본부별로 팀을 이뤄 고향사랑기부제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고, 광주·전남 지자체에 22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집값 80% '2%대 금리' 대출

1년 이상 가입·1천만원 이상 납입면 전용 주택담보대출 연계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다.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50만원이었던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으로 높였다.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된다. 단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에 수령한 경우 목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강점은 주택 구입 때 대출과 연계된다는 것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21일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존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보-남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업체당 최대 2천만원 대출... 연 최대 4.0% 이자 지원

광주신보보증재단(광주신보)은 지난 19일 광주 남구청과 '2024년 남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남구 지역 소상공인의 보증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남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신청 접수일까지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다. 보증규모는 총 33억6000만원으로, 광주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이번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남구청에서 연간 최대 4.0%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광주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을 신청한 뒤, 예약 당일 해당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지원할 수 있다. 이안목 광주신보 보증사업본부장은 “신속한 보증공급을 통해 남구 소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신보는 지난해 남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광주 남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158개 업체에 30억원을 지원했고, 지난 2012년부터 총 144억 6000만원의 보증을 공급해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보보증재단(광주신보)은 지난 19일 광주 남구청과 '2024년 남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남구 지역 소상공인의 보증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남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신청 접수일까지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다. 보증규모는 총 33억6000만원으로, 광주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이번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남구청에서 연간 최대 4.0%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광주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을 신청한 뒤, 예약 당일 해당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지원할 수 있다. 이안목 광주신보 보증사업본부장은 “신속한 보증공급을 통해 남구 소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신보는 지난해 남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광주 남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158개 업체에 30억원을 지원했고, 지난 2012년부터 총 144억 6000만원의 보증을 공급해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유통가에 봄이 왔어요 20일 광주신세계 신관 지하 1층 컨버스 매장 직원이 '컨버스 척 70'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는 2024년 올해의 컬러로 '그린'을 선정했다. 광주신세계에서는 뉴발란스, 아디다스, MLB, 컨버스, 데상트 등 유명 의류 브랜드에서 그린 컬러를 띠는 봄 신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상의, 27일 경제포럼 조찬강연회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저성장시대의 경영전략' 강연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대연회장서 제265차 광주경제포럼 조찬강연회를 개최한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이 '저성장시대

의 경영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김 원장은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과 지역 기업이 겪어보지 못했던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이후형 광주상의 본부장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성장시대 속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역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찬강연회는 하·동절기를 제외한 매월 네 번째 화요일 오전 6시40분부터 진행되며, 조식을 제공한다. 참가비는 광주상의 회원사는 무료, 비회원사는 1인당 2만원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57.79(-22.47)
↑ 코스닥	866.17(+7.70)
↑ 금리(국고채 3년)	3.405(+0.008)
↑ 환율(USD)	1337.60(+2.40)